

김지원 시의 두 지향

김 병 택*

차 례

1. 프롤로그
2. 김지원 시의 내면 지향
 - 1) 타향과 이국의 풍경 체험
 - 2) 대상에 대한 감상적 인식
 - 3) 기원과 의지
3. 김지원 시의 현실 지향
4. 에필로그

1. 프롤로그

김지원(金志遠)은 한국 근대 시문학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한국 근대 시문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낯설다. 그가 태어난 제주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원은 『조선문단』 1925년 1월호에서의 「哀願」 입선, 동년 11월호에서의 「거지할미」 당선, 이듬해인 1926년 3월호에서의 「유곽」, 「마지막 울리는 祈禱」, 「火山의 노래」 등 3편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러한 사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실은 그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 다소 엄격한 과정을 거쳐 문단에 데뷔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지원의 조카 김석훈(金錫勳)¹⁾이 쓴 「스물넷, 그 짧은 흔적과 시편」에 의하면, 김지원이 태어난 곳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512번지이다. 생년월일은 1905년 5월 1일²⁾이며 아버지 김항면(金恒勉), 어머니 송숙부(宋淑婦) 사이의 5남매 중 막내이다. 그는 부친이 서른들의 나이로 요절하는 바람에 유복자로 태어나 1916년 열두 살 때 어머니(그의 모친은 서울에 집을 마련해서 하숙을 쳤다.)를 따라 서울로 간다. 서울에서 중앙고보를 다녔다는 말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여러 자료와 시 「江戶風景」, 산문 「狂想奔語(一)」, 「狂想奔語(二)」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그는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일본 동경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문학 수업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27년 어느 날 그는 「조선일보」와 「조선문단」 등을 통해 왕성한 시작 활동을 하다 행방불명이 된다.³⁾

김지원이 남긴 작품 27편은 김석훈에 의해 수집되었는데, 이들 중 「狂想奔語(一)」, 「狂想奔語(二)」 등 2편은 산문이고 나머지 25편은 모두 시이다. 그가 남긴 시의 분량은 한국 근대 시문학사에 명멸한 다른 시인들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시는 1920년대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정밀하게 드러내고, 또한 당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당시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시문학사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두 편⁴⁾의 글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시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그의 시세계를 파악하

1) 김석훈(1933~): 북제주군 조천 출생. 시인. 필명은 石鄉. 김지원의 작은형인 金贊遠의 아들이다. 시집으로 『靈室』, 『反葬』이 있다.

2) 이와는 달리 김해 김씨 좌정승공파 족보에는 11월 1일로 되어 있다.

3) 김지원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김석훈, 「스물넷, 그 짧은 흔적과 시편」, 『제주예술』 제8집(1995. 12.), 43~46쪽에 의거했다.

4) 오성찬, 「濟州詩人 1호」, 金志遠, 『제주문학』 22호(1992. 12.): 김영화, 「제주문학 80년」, 『변방인의 세계』(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는 데는 미흡하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김지원 시에 나타나는 내면 지향의 세계와 현실 지향의 세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참고로 김지원의 작품 연보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 연대	제 목	발표지	비고
1924. 1. 1.	깨어진 七寶塔	조선일보	신시가작
4.	나의 祈願	금성 제2호	독자시
1925. 1.	哀願	조선문단 총4호	입선시
11.	거지할미	조선문단 총13호	당선시
1926. 3. 17.	江戶風景	조선일보	
3.	유곽	조선문단 총14호	당선시
	마지막 올리는 祈禱	조선문단 총14호	당선시
	火山의 노래	조선문단 총14호	당선시
5.	NIHIL	조선문단 총16호	
	虛無의 王國	조선문단 총16호	
7. 31.	번개여, 빗췌라	조선일보	
11. 2.	頽廢한 노래(舊稿) - 序曲/느린가을밤	조선일보	
11. 13.	頽廢한 노래(舊稿) - 피빛의음파	조선일보	
11. 19.	頽廢한 노래(舊稿) - 所謂詩人	조선일보	
11. 29.	頽廢한 노래(舊稿) - 송장	조선일보	
11. 30.	自畫像	조선일보	
12. 3.	어데로 가노	조선일보	
12. 10.	내쫓기는 무리들	조선일보	
12. 18.	狂想奔語(一)	조선일보	산문
12. 21.	狂想奔語(二)	조선일보	산문
1927. 1. 5.	제말, 제마음	조선일보	
1. 24.	除夕	조선일보	
2. 18.	春日哀唱	조선일보	
2. 26.	七旬의 노래	조선일보	
4. 2.	必然의 律法	조선일보	
11. 24.	울안의 盟誓	동아일보	
1928. 1. 1.	새해맞이	조선일보	

2. 김지원 시의 내면 지향

김지원 시에 나타나는 내면 지향은 세 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타향과 이국의 풍경 체험', '대상에 대한 감상적 인식', '기원과 의지' 등이 그것들이다. 즉, 그는 거지할미·송장·유곽·에도 등 타향과 이국의 풍경을 체험하고, 늦은 가을밤과 핏빛의 음파라는 대상을 감상적으로 인식하며, 더러운 세상과 죄악의 근원인 돈의 소멸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1) 타향과 이국의 풍경 체험

김지원이 타향과 이국의 풍경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그것의 하나는 김지원이 열두 살 때부터 고향 제주를 떠나 타향에서 살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김지원은 일본에 가서 체류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김지원이 타향에서 체험한 것은 거지할미·송장·유곽 등이다. 그런데 그의 풍경 체험이 그의 특별한 노력의 소산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시의 유포를 의식한 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로지 타향과 이국의 풍경 체험을 소수의 몇 사람에게 조용히 들려줄 뿐이다.

나는그때본바를 니질수업다
차마도두눈에 어리어 니질수업다
어느시골행길 무잡히 욱어진 술밭가
늪어빠진 거지할미 느러져 잇슴을

(.....)

해룡피외투를 둘러입은듯한 그살빛

피고름 흘리는 군데군데의 허물
형채만 남아있는 눈과코
히말금한 두눈알 구울이는 그설이여

(……)

한때는뭇품에안겨 아양을피든 계집
지썸어 들어가는 당창에 흘이긴할미
나는그때본바를 니질수업다
차마도두눈에 어리어 니질수업다
(1925. 11.)
—「거지할미」 부분

1925년 어느 날 김지원이 목격한 '거지할미'는 그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에서는 첫 연의 “나는그때본바를 니질수업다/차마도두눈에 어리어 니질수업다”가 끝 연에 똑같이 반복되는 회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회상되는 내용의 제재는 말할 필요도 없이 '거지할미'이다. 그는 그 '거지할미'가 보여주는 비참성의 근거를 주로 외관에서 찾는다. 가령, “해통피외투를 둘러입은듯한 그살빛/피고름 흘리는 군데군데의 허물/형채만 남아있는 눈과코/히말금한 두눈알 구울이는 그설”은 '거지할미'의 비참성을 드러내기엔 충분하다. 이 시의 말미에 부기된 주요한의 “大膽히도 「詩的感情」을 蹂躪한作品이다. 그 大膽한것을取한다.”⁵⁾라는 평도 그 비참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외관의 묘사에 치중하다가 잠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때는뭇품에안겨 아양을피든 계집”이 그 예이다.

송장
오호 허트러진나의마음이여
오날본바를 거듭생각해내자

5) 『조선문단』 총13호(1925. 11.), 64쪽.

괴괴한 바위들 굴리는벌판
장엄히 내려다보는해빛아래

두세알개 풀입으로 억메인 움집
그속에 느러진 썩어저가는 송장을

다떠러지다 남은거적가리
한귀는답고
또한귀 거칠게 깔렸슴이여
애처로운 벗님의 턴금(天衾)과 디요(地褥)
다시엮는 이나라에 빛나는 금관(金棺)
(1926. 11. 29.)

—「頽廢한 노래(舊稿)-송장」부분

「거지할미」가 지니고 있는 회상 수법은 이 시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오호 허트러진나의마음이여/오날본바를 거듭생각해내자”가 첫 연과 끝 연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지할미」가 “그때본바”를 회상하고 있는 점과, 「頽廢한 노래(舊稿)-송장」⁶⁾이 “오날본바”를 회상하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르다. 시인이 “두세알개 풀입으로 억메인 움집”에서 썩어가는 송장을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한의 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김지원은 노래하지 않고 토로한다. 그의 시 제목인 「頽廢한 노래(舊稿)」에서의 ‘노래’는 ‘노래하다’의 노래가 아니라 ‘시’를 의미하는 노래이다. ‘노래’가 그의 시 제목에서만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1920년대에 쓴 주요한의 글 제목도 「노래를 지으려는 이에게」⁷⁾였다.

6) 김지원의 「頽廢한 노래(舊稿)」는 일종의 연작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네 편이나 된다. 이 네 편을 각각 구분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각 시의 제목 다음에 소제목을 첨가했다.

7) 이 글은 『조선문단』 창간호(1924. 10.), 2호, 3호에 연재되었다.

여기는 못귀신이 거품무는 고기의장터
 붉은살 누른썩 보기조케 느려놔있다
 싸구려 흥랑치는 늙은것의 노래소리는
 옛보는 주린개 느린소리 하늘거워라

(……)

여기는 독개비 행상터인 어둠의나라
 찬바람 구진비 어즈럽게 현날리운다
 잇다금 어스름한 달빛에 빗추어보면
 무시무시 씹직하게 느러진 그설들이여—

뺨어벗고 난잡스리 두다리 버러트리여
 늙흔피 옛튼바위 시내가 옥어진잠목
 추추한 물랑소리 히히호호 여호의울음
 미와추의 참된정화 천국의자랑 산지옥
 (1926. 3.)

—「유곽」부분

작품 연보에서 밝힌 대로 이 시와 「마즈막 올리는 祈禱」, 「火山의 노래」 등은 주요한이 뽑은 당선시들이다. 주요한은 김지원의 당선시들에 대해 “金志遠君은 漸次로 極端의 現實主義(嚴肅한 意味의 現實主義) 惑은 人道主義로 드러간다. 옛던 作은 ‘보들레르’를 聯想케 하고 옛던 것은 未來派 惑 印象派를 생각케 한다. 現詩壇에는 金巴人君이 그런 傾向이 있다. 기피드러가 보기를 力勸한다(떠어쓰기-필자).”⁸⁾라고 말한 바 있다.

김지원은 「유곽」에서 고향 제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소 음산하기까지 한 유곽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는 이 유곽에 대해 “여기는 못귀신이 거품무는 고기의장터”, 또는 “여기는 독개비 행상터인 어둠의나라”에서 보듯 비교적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그 자신은 향락과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 좋지 않게 인식

8) 주요한, 「推敲라는 것」, 『조선문단』 총14호(1926. 3.), 57쪽.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4연에 비록 예로틱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에서 그 냉소적인 시선은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

돈넛

우두릉 쪽 와지끈 짝
꽤아닌 겨울밤에 벽녀이나리운다고
몸서리치며 군소리치며 치여다보니
구렁이가튼 성선(省線)은 다라나구요
걸쳐노은 털뭉새로 등근달 마조웃지요

카페

하안형접우에 푸르고붉은글자들이
파사들 파사들 바람에 날려손질을하기에 멋도몰고 들어섰더니
노린내 비린내 춤을추구요
분통에서 갓나온 조기(女給)는 눈동자 모로굴리지요

集會(三)

가이섯앙(解散) 와아 우루루...
바람벽 문혀졌나 텨정이쑤터졌나
두눈이 벗쩍 띄여서보니
양갈은 더벅머리 췌여가구요
검정이 귀치안케 등을밀지요

洋屋

하날이 그리워 죽은귀신의 조작인지
짜이 미워 올라간 달님의작란인지
사람이싸는 턴문대가 망원탑가 울어러보니
새하얀 카펫 새로 수스대소리 우슴소리홀러나구요
췌칭노대(露臺)에는 붉은구름 구진비 얼크러졌지요
(1926. 3. 17.)

—「江戸風景」 전문

을 통해 이국 일본 에도(지금의 동경)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다. 묘사 중심적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가 그리고 있는 에도의 풍경은 매우 감각적이다. 이 시는 청각과 시각을 잘 드러내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한 감각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친근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김지원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해 그의 조카 김석훈은 「스물넷, 그 짧은 흔적과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조선문단』의 「投稿하신 諸位께 特告」에는 “(……) 檢閱이라는 難關이 있어서 가령 十一月號를 發行하려면 十月 五日 前에 編輯해서 警務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原稿 보내시면 그 다음 달이나 또 그 다음 달이나 실리게 됩니다(띄어쓰기-필자).”⁹⁾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金星』도 그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통상 작품이 발표되는 시기를 두고한 지 한 달 후로 잡을 때, 김지원의 일본 체류 기간은 ①『金星』 1924년 4월호에 「나의 祈願」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인 3월부터 『조선문단』 1925년 1월호에 「哀願」(입선작)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인 1924년 12월까지의 기간, ②1925년부터 1월호부터 『조선문단』 1925년 11월호에 「거지할미」(당선시)가 발표되기 한 달 전인 동년 10월까지의 기간이 된다. 김석훈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24년 가을, 그(김석훈)의 어머니가 청진에 갔을 때 할머니로부터 “초겨울에 숙부(김지원)가 잠시 다녀가고는 오지 않았으며 편지만 3년간 대여섯 번 오고는 말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제시한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1931년 6월 13일자 『조선일보』의, 할머니가 숙부를 찾아달라고 호소한 기사¹⁰⁾와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9) 「投稿하신 諸位께 特告」, 『조선문단』 제2호(1924. 11.), 50쪽.

10) 1931년 6월 13일자 『조선일보』에는 「遺腹獨子를 차차 二千里徒步行進, 청진에서 경성까지 와, 눈물겨운 母性愛」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유복자(遺腹子) 외아들을 차차 수천리 먼길을 촌촌 걸식하며 서울로 올라와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장안의 거리로 해매이는 불쌍한 시골늙은 부인. 그 부인은 청진부내(淸進府內)에 사는 송씨(宋氏)(六一)라는 늙은 과부로서 삼십세내에 남편을 여의고유복자로 외아들 김지원(金志遠)(二六)을 나허 귀찮게

양주동은 「금성시대」에서, 김지원이 쓰르마키(牛込區 鶴券町 38 大扇健)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자기를 자주 찾아와서 왜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작품에 대한 평을 청했다¹¹⁾고 말한다. 1925년 10월, 『시대일보』를 그만둔 나도향(羅稻香)과 이태준(李泰俊)은 차례로 동경으로 갔고, 이들과 함께 김지원은 그야말로 궁핍한 생활을 계속한다. 이 점은 이태준의 「도향 몇 가지 생각」¹²⁾과, 동경에서의 외롭고 고달픈 생활을 잘 말해 주는 연재 산문 「狂想奔語(一)」, 「狂想奔語(二)」를 통해 확인된다.¹³⁾ 이 산문이 오래 연재되었다면 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경에 머물렀던 것은 아마 학업

길러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에 김지원은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몇해동안은 통신이 있더니 이후 삼년 동안에는 아무런 통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외아들의 소식을 삼년동안이나 듣지못하여 밤낮가슴을 태우며 울고지내든 전과 송씨는 늙은 시골부인의 몸을 불구하고 아들의자취를 달하 감연히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하여 十二일 본사를 방문하고 내아들 좀차자주시요하고 울며불며 “六十로모의 이정경을 생각지안는 그불효의자식을 차져 무엇하랴마는 어미된 나는 이즈래야 이질수업스니얼굴이나 한번 보여줍소사”하고 부르지졌다.”

11) 양주동, 「금성시대」,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사』(깊은샘, 1999), 166쪽.

12) 다음은 이태준, 「도향 몇 가지 생각」, 『현대평론』 제7호(1927. 8.)에서 김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때 우애학사에는 공기만 먹고 살아 보려던 세 엉터리가 있었으니 나도향, 김지원, 나 자신이 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서할 만한 것은 動則損이라 하여 한 번 얻어 먹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려 갈까봐 몇끼가 지나도록 사팔뜨기 눈을 흘겨뜨고 그런 듯이 누워사는 지원군의 소위 僻消化法이었다. 하로도 前例에 의하여 아침 점심을 約하고 나니 자가의 僻消化法을 확신하는 김군은 물론 이요 2천만이 칠십년간을 두고 먹을 수가 있다는 금강산 속에 묻힌 금을 꿈꾸는 도향도 태연히 누워 있었다.”

(정종진, 『한국작가의 생태학』, 우리문화사, 1991, 209쪽에서 재인용.)

13) 동경에서의 외롭고 고달픈 생활을 잘 말해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東京의 살림은 가궁도하지

서울날 굶지말자 해매는풀이여

「빠다업는 팡」은 목안에 안남아 한斤에 삼십전 이들은 먹것다 고음에 썩국은 업다 그러나 菜蔬를 먹어야 名節날이지 「다구양쓰게」가 마수가잇서 한뿌리이십전 아주빚나네

죽은이 祭祝는 못드릴망정 산사람입술에 거미줄얼키나 全財産던소 방안에드니 三疊房구석에 달리던元燭 내마음 내肉身비꼬음갓다”

—「狂想奔語」(一) 부분

을 계속해 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조선문단』 1926년 5월호에는 시 「NIHIL」과 「虛無의 王國」이 발표되고, 『조선문단』 6월호 「文壇散話」에는 “稻香君은病으로, 貧으로東京서 고생고생하다가 歸國하였고”¹⁴⁾라는 소식이 실려 있다. 이것은 그가 나도항과 함께 귀국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그가 1926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에 「江戶風景」을 발표한 이후, 7월 31일자 같은 신문에 「번개여, 빗췌라」를 발표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다.¹⁵⁾

한편 김지원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가 쓴 산문 「狂想奔語(一)」, 「狂想奔語(二)」의 말미에는 쓴 날짜가 1926년 12월 18일과 12월 21일로 각각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상에 대한 감상적 인식

김지원이 지니고 있었던, 감상적 인식의 대상은 두 개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느진가을밤’ 이고 다른 하나는 ‘피빛의음파’ 이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그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상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상들이지만 그의 시가 보여주는 감상적 인식은 다른 시인들의 시에 비해 아주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김지원 시에 나타나는 감상적 인식은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이다. 그의 시가 유파와 거의 무관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대상에 대한 감상적 인식에도 그러한 점은 똑같이 적용된다.

一. 느진가을밤

여기는 지난날호화스로서 지어는 진각

지나치는 비바람 몇 번이나 지나갔는고 숨어жат는고

14) 갈매기, 『文壇散話』, 『조선문단』 총17호(1926. 6.), 54쪽.

15) 김석훈, 앞의 글, 46쪽.

넷일을 말습하는 낱어싸진 기동만이
쓰러져가는 대들보 굽은허리 일사안고 썰고잇도다
네갈내 여덜갈내 구름길을 청삽사리 울고가는데
다홍치마 분홍치마 둘러쓴 게집애들은
하이한술 마서가며 춤들만 추도다
고양가는 색씨처럼 머리카락 허무치고
긴한숨 내쉬며 춤들만 추도다
(1926. 11. 2.)

—「頽廢한 노래(舊稿) - 序曲/느진가을밤」 부분

이 시는 “지난날호화스로히 지여는 진각”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과거 지향적이다. 그 풍경은 김지원의 스산한 심사를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스산한 심사는 아무래도 대상에 대한 어두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고양가는 색씨처럼 머리카락 허무치고/긴한숨 내쉬며 춤들만 추도다”가 그것을 말해 준다.

그 스산한 심사는 바꾸어 말해서 허무이며, 이 시에서의 핵심적인 정서이다. 김지원은 이 시를 고뇌하면서 썼을지 모르나 독자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점과 관계없이 이 시의 메시지는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된다. 늦은 가을밤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이 시는 명편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도다”투의 문어체적 표현도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四. 피빛의音波

붉으레한 장옷쓴 소리개 차자오다
멧억만 병아리안은 암탉의 품 차자오다
암탉은 쪽고닥울고 넘어젧도다
병아리들 날며뛰며 아우성치도다

대디는 선하품 내쉬며, 몰아눕나
넘우나 낱어저 괴로움인들 만나갓스랴
우리에 길으든 도야지들도 뛰어나왔다

넘우나 갓챗스니 박갓인들 안그리우라

하날밋짜우 허트러히 헤썬리는 갈바람이여
 헐벗고 굶주려 아우성치는 피빗의 음파여
 (1926. 11. 13.)

—「頹廢한 노래(舊稿) - 피빗의음파」 전문

이 시는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짙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이면에 숨어 있다. 그것은 물리적 차원에 놓여 있는 술개와 병아리·암탉·돼지 등의 가축이 독자에게 친숙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처럼 김지원의 시에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시에만 국한해서 말할 때에, 그 동물들은 모두 감상적 인식의 대상으로 동원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시에서는 시인의 의도가 주목될 만하다. '피빗의音波'라는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빗", "붉으레한" 등의 표현은 퇴폐적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상황을 야기하게 하는 것들이다.

3) 기원과 의지

김지원 시의 또 다른 내면 지향의 세계는 기원과 의지이다. 기원은 번개가 비추기를, 또는 벼락이 치기를 열망하거나 아니면 조물주에 대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으로, 의지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온 세상의 거짓을 없애버리자는 식의, 다소 강력한 힘의 행사를 추진하는 형식으로 각각 나타난다.

번개여 빗썬라
 벼락이여 처라
 人間的거리虛無한 무덤에는

구덩이들이 썰며 궁근다
더러움과거짓에얼키운이世上
哲理는조을고 괴양이뛰는데
번개여 빗췌라
벼락이어 처라
(1926. 7. 31.)

—「번개여, 빗췌라」 전문

김지원의 기원은 강렬하다. 그는 “번개여 빗췌라/벼락이어 처라”고 부르짖는데 그 배경에는 “더러움과거짓에얼키우고 “哲理는조을고 괴양이뛰는” 세상이 있다. 그 부르짖음은 다르게 말해서 기원이다. 그것도 강렬한 기원이다. 이 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하다. 추악한 세상사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번개와 벼락의 힘에 의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시에는 그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힘에 대한 믿음과 자연의 힘이야말로 추악한 세상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

權能하옵신 造物主여—
당신의 온 힘을 다하여
賁업다는 돈을 지으섯거든
차라리 늦김만은 저를 내어지말으시지요!

(……)

오! 神이여!
나는 차마쓰려서
잊고십지 안어요
이러한 修羅場에는.

오! 運命의 神이여
引導하소서
저—푸어한 동산으로—

이 쓰림에 떨고있는, 우리 人生을!

(1924. 4.)

—「나의 祈願」 부분

돈은 모든 최악의 근원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김지원은 권능한 조물주에게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깨끗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원한다. 물론 이러한 기원은 일차적으로 그가 처해 있는 빈궁한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좀더 확대해 보면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맑은 현실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김지원의 어조는 단호하기까지 하다. 이 시에서의 그의 자세는 대상에 대해 감상적인 인식을 토로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절대적인 힘의 소유자인 조물주에게 “저—푸어한 동산으로—” 인도해 주기를 직접 기원할 때의 그는 더이상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그 기원을 관철하는 데에 쏠려 있다.

오—主여—

나의게 安慰의 무덤을 달나

그러지 안으면 그러지 안으면 그러지 안으면

날카로운 武器를 달나

자랑으로 뽐여노은 파란동산에는

곰게 심엇든 芝蘭香草 다 시들어지고

셋뱀안혀(舌) 뽐내는 毒蛇의 무리

주림에 날뛰는 들짐생

오—主여—

나의게 安慰의 무덤을 달나

그러지 안으면 그러지 안으면 그러지 안으면

날카로운 武器를 달나

(1925. 6. 19.)

—「마즈막 올리는 祈禱」 전문

「나의 祈願」이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시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 준다. 새빨간 혀를 뱉내는 독사의 무리가 있고 주립에 날뛰는 들짐승이 있다. 주(主)에게 안위의 무덤을 달라고 한 것,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무기를 달라고 한 것 등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인이 선택한 행동이다.

『조선문단』에 투고한 작품이 당선시로 뽑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예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투고되는 작품이 매일 2, 3십편 정도이고 한달이면 오, 육백편이나 되었다”¹⁶⁾라는 사실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이 시는 주요한이 「유곽」, 「火山의 노래」와 함께 당선시로 뽑은 작품이다.

나의 모든자랑의 玉들을모아, 탐스러히 지여노은 마음엿殿堂.
오 나의 마음엿殿堂은 문어젖도다. 지나가는 갈바람에 시쳐갓도다.
오직 뷔인들을 직히고잇는 우툴두툴한 柱礎들만이
허트러진 옛생각에 울고잇도다. 아우성 치도다.

(……)

오 애들아, 구름갓치 自由롭고, 수수꺼기갓치 갑숙한 王國을 세우자.
그래서 그나라왕의 勅命을 밧들자, 참다운 哲理에서 울어나는 勅命을 밧
들자.

오 새로운王國 虛無의王國, 그우에 써도는 씨치는소리, 建設의노래.
힘있게 울녀을 交響樂이어.

(1926. 1. 1.)

—「虛無의 王國」부분

16) 「編輯후뎨말씀」, 『조선문단』 총4호(1925. 1.), 209쪽.

이 시에서 김지원은 바람직한 상태를 향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것은 '王國', '殿堂', '塔'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虛無의王國'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오 새로운王國 虛無의王國, 그우에 써도는 썬치는소리, 建設의노래/힘있게 울너을 交響樂이어."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王國'과 '虛無의王國'은 오히려 동일한 문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김지원 시에 등장하는 '허무', '무덤', '노래' 등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언어들은 그의 시에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에서도 그것은 쉽게 확인된다.

한알개 성냥개비
 온세상 불살은다면
 그대는 거짓이라 비우슴치고
 께변과 망설을 뿌려노리라.

그러나 빛는가 한알의 탄자를.
 허날땀 뒤업는 한알의 탄자를…….

오호 벗이어, 武器를 들자,
 참에서 울어난 武器를 들자,
 그래서 온세상의 모든거짓을,
 썬려라, 부쉬라, 힘껏썬치자.
 (1926. 2. 27.)

—「NIHIL」전문

「虛無의王國」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허무라는 말이 원래 거느리고 있는 관념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시의 제목이 'NIHIL' 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다른 시인들이 낱말을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 김지원은 낱말의 본래 의미에서 일탈하는 작업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지원 시에서의 허무는 유약한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허무는 이 시에서 물질과 결합된다. '한알의 탄자'가 등장하고, 무기를 들어 온 세상의 거짓을 때리고 부수고 힘껏 깨치자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은 당시 청년들의 가슴에 가득했던 허무의 실체가 무엇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3. 김지원 시의 현실 지향

김지원 시가 현실을 지향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에서이다. 그 네 가지 경우란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노래하고, 총독부의 언어 정책을 비판하고, 현실을 관류하는 율법을 내세우고, 저항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 지향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시대 상황이다.

내면 지향의 시를 쓰던 김지원이 현실 지향의 시를 쓰게 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의 하나는 그만큼 그의 현실적 자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날짐생도 제깃을 차자드는데
굶벵이도 제궁계 숨어자는데
눈보라 휘뿌리는 이집혼 겨울밤
내터를 등지고 어데로 가시고
흰웃입은 파리한 얼굴들이여

(.....)

남전복담 집안세간 황소뺨긴 선몰이니

악착한 괴물에 피를빨리고

영폭한 아귀에 고기를뚫겨
 뼈만남은 앙상한쌀 내뚫기는무리여
 (……)

—淸津驛에서

(1926. 12. 10.)

—「내뚫기는 무리들」 부분

한국 시문학사에서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한 경우는 이용악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시기를 따져 순서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김지원의 시가 첫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제시대의 농촌 궁핍화는 토지 수용-동양척식주식회사-식량 수탈-고리채 등의 과정을 밟아 행해진다. 일본의 한국 토지 조사는 1910년에 시작되어 1918년에 끝난다. 그것은 “일본인의 사적 토지 수탈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 토지 수탈은 1911년의 토지수용령에서부터 본격화된다. 그렇게 수탈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거쳐 일본 농민들에게 배부된다. 합방 전에 동척에 투자된 2천4백30정보가 1914년에는 65만 3천9백56정보로 늘고, 1918년에는 다시 4천5백 정보가 늘 정도로 토지 수탈은 악랄하게 행해진다. 1919년 이후에는 상당량의 토지를 빼앗긴 한국 농민들에게 식량 수탈이 시작된다. 한국 쌀을 빼앗아간 대신에 한국 농민들에게는 만주의 잡곡이 주어진다. “총독부는 산미증산정책을 통해 한국 농민으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좋은 쌀을 헐값으로 약탈당하게 만들고 반면 보다 비싼 만주의 조를 먹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조건에 묶어”¹⁷⁾ 놓은 것이다. 농민의 궁핍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고리대금이다. 그 고리대금은 대부분 일본 은행의 산업자금이다. 그 결과 농민의 궁핍화는 극대화된다.¹⁸⁾ 유이민은 그 결과 발생한 현상이다.

이 시는 일제시대 유이민이 겪었던 비극적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7) 홍이섭, 「조선총독부」, 『한국현대사 4』(신구문화사, 1969), 48쪽.

18) 농촌의 궁핍화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2000), 221~222쪽에 의거했다.

그들은 “눈보라 휩뿌리는 이깎흔 겨울밤”에도 ‘흰웃입은 파리한 얼굴들을 하고 있고, “남전북답 집안세간 황소”를 뺏긴 상태이며 “악착한 괴물에 피를빨리고/영폭한 아귀에 고기를뚫겨/써만남은 앙상한꿀 내뿜기는” 처지에 있다. “영폭한 아귀”에서 보듯 이 시에서 김지원은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날짐생도 제말을 쓰거든
들짐생도 제말을 쓰거든
하물며 사람에게 제말이 엄슬가보나

집은 업서지고 세간은 일헛다해도
혀는 썩히고 두손은 못갓다해도
차라리 칼을물고 업혀질망정
엇지 내마음 내말이야 뺏길가보나
오로지 사람된이어
내마음을 한쪽 가지신이어
제마음 나타내는 제말을
(1927. 1. 5.)
—「제말, 제마음」 전문

일제시대의 교육 목표는 철저한 식민지 국민의 양성에 있었다. 합방과 동시에 각급 학교 교장은 일본인으로 임명, 교원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교육의 국군화를 도모하였고, 1922년에는 보통교육에 있어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하였으며, 고등교육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치의 표방에 따라 이 땅에도 전문 교육의 실시를 허용, 1926년부터는 경성제국대학의 개강을 보게 되고, 사립학교의 설치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다. 일제시대의 학제는 보통학교 6년, 중등학교 5년, 전문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밖에 실업학교·사범학교를 두었다. 그 교과 내용은 초기에는 국사와 조선어의 과목을 인정하다가 민족말살정책의 수행에 따라 국사와 조선어의 강의를 철폐하였다.¹⁹⁾ 이 시는

당시 총독부의 언어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참사람 죽이면 죄인이된다
 세상도 참부쉬 죄인이된다
 탈박쓴 인생은 죽어야갸다
 거짓된 세상은 불살을진다
 필연의 룰법은 이러케 덩헷다

거짓을 열사안고 곤두박질을 친다
 사람은 사람을 싸먹고 배를부린다
 종족은 종족을 싸몰고 버터저간다
 이놈의 세상은 이러케 싸노앗다
 (1927. 4. 2.)

—「必然의 律法」부분

김지원의 현실 인식은 강건하다. 그것은 현실을 진단하는 일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자세를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두루 나타난다. 그는 유연한 사고를 거부한다. 이 시에서는 조금의 유약함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의 언어는 쉽게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언어들은 그에 의해 선택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연의 율법은 그러므로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현실에 대한 처방과도 같은 것이다.

내밤반(夜半)에 일어나 울안을 한 바퀴 돌다
 별빛이 아롱진 고요한 밤의 꿈조차 조는듯한데
 내흠노일어나 울안을 한바퀴돌다
 (.....)
 내 밤반에 거듭일어나 무덤가 樹叢을 어루만즈다
 검푸른 불빛이 싹뻗이는 무덤가 구진비 나리는데

내홀노 엄니를 썰며 무덤가 축루를 어루만즈다
(.....)

내밤반에 세 번째 일어나 하늘을 대쳐 니를갈다

圓光이무르녹은 늙다란하날

北斗조차 내려다보는데

내홀노일어나 주먹을쥐고 하늘을 대쳐 니를갈다

축누가 거의된 이꼴일망정 그래도

숨결은 불타올으니 文明의 利器는 못가것을망정

독기와 화살은 새로웠노니

니를갈며 니를갈며

내원수를쳐 거짓을 썬치리라

—1927 仲秋 마지막선언에서

(1927. 11. 24.)

—「울안의 盟誓」 부분

이 시는 「必然의 律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지원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의 축수는 여전히 현실을 향하고 있으며, 시인으로서의 그의 자각은 뚜렷하다. 「必然의 律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에서도 그는 계속 긴장한다. 또한 그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그의 분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밤반에 거듭일어나 무덤가 櫛體를 어루만즈”고 “홀노일어나 주먹을쥐고 하늘을 대쳐 니를” 간다. 그는 계속 외친다. “니를갈며 니를갈며/내원수를쳐/거짓을 썬치리라”고. 그에 의하면 그것은 ‘마지막 선언’이다.

5. 에필로그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지원 시가 보여주는 ‘타향과 이국의 풍경 체험’, ‘대상에 대한 감상적 인식’,

‘기원과 의지’ 등 내면 지향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지향의 세계이다. 이제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원은 열두 살 때부터 고향 제주를 떠나 주로 타향(주로 서울)에서 살았고, 일본에 체류하기도 했다. 그가 타향에서 체험한 풍경은 거지할미·송장·유곽 등이다. 그의 풍경 체험은 그가 특별히 노력한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어떤 시의 유파를 의식한 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로지 타향의 풍경 체험이든 이국의 풍경 체험이든 그의 시는 그것을 아무런 가감이 없이 그냥 소수의 몇 사람에게 들려주는 형식을 취한다.

김지원 시에 나타나는, 감상적 인식의 대상은 두 개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느진가을밤’이고 다른 하나는 ‘피빛의음파’이다. 이 두 개는 어느 시인에게도 감상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상들이다. 그의 시는 감상적 인식의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지향적이다. 그 점은 대상에 대한 감상적 인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김지원은 주로 자신의 기원과 의지를 토로한다. 그것을 위해 그는 번개와 벼락과 조물주를 동원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또는 온 세상의 거짓을 없애버리기 위한 힘의 행사를 추진하기도 한다.

김지원이 현실을 지향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에서이다. 그 네 가지의 경우란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노래하고, 총독부의 언어 정책을 비판하고, 현실을 관류하는 율법을 내세우고, 저항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말한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 지향의 근원은 물론 시대 상황이다. 내면 지향의 시를 쓰던 그가 현실 지향의 시를 쓰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만큼 그의 현실적 자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점과 시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것들이다.